

# 제32회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대회

The 32<sup>nd</sup> Korea-Japan-China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주최한  
‘제32회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대회’가  
지난 5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984년 한·일 산업보건 학술대회로 출발해  
2001년부터 중국이 정식 참여하면서  
동북아 3국의 대표 산업보건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학술대회 현장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안종근

## #Day 1



## #Day 2



기간 : 2025년 5월 29일(목) ~ 31일(토)  
장소 : 서울 코리어나호텔  
주최 : 대한산업보건협회  
주제 :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산업보건

## #Day 3





## 산업보건 관리 사례 중심의 워크숍으로 개막

제32회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대회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산업보건(New Risks and Challenges in Occupational Health)’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일본, 중국의 산업보건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각국의 산업보건 경험과 정책 대응, 최신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나누는 국제 협력의 장이 되었다. 5월 29일 오후 2시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3시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산업보건 관리 사례 공유 워크숍’, ‘직업병과 위험평가’를 주제로 한 구두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4시 30분부터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이후 전자 포스터에서 자유롭게 질의응답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Day 1

## 다채로운 심포지엄과 문화가 어우러진 학술대회

5월 30일 오전 9시에 열린 공식 개회식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산업보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일·중 3국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보건은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산업의과대학 히가시 교수, 중국 직업안전보건협회 판칭광 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강성규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김정원 부회장,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박종일 과장이 축사에 나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워크숍, 심포지엄, 기조강연,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연구 성과와 현장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었다. 기조강연 I에서는 산업보건의 현재 과제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요리와 폐암’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I, ‘근로 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을 다룬 심포지엄 II, ‘산업보건과 독성학’ 등 다양한 구두 발표가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요리 중 발생하는 조리흡과 폐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는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핵심 이슈로 주목받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한·일·중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산업보건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한편, 서로 기념선물을 교환하며 특별한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저녁 만찬에서는 ‘한국의 궁궐, 서울의 매혹’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재즈 공연이 진행되어, 학술 교류를 넘어 한·일·중 3국 간 문화적 소통의 장도 함께 마련되었다.



# #Day 2





New Risks  
and Challenges  
in Occupational Health



# #Day 3

## 고(故) 이케다 교수 추모와 함께한 마지막 날

학술대회 마지막 날은 한·일·중 산업보건 교류에 헌신한 고(故) 이케다 교수 추모로 시작됐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 후, '실내 환경평가 및 관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Ⅲ, '산업보건 분야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Ⅱ가 이어졌으며, 폐회식과 함께 차기 개최지(일본) 소개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2회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대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한·일·중 3국이 산업보건안전이라는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현장의 실천적 지혜와 학술적 깊이가 만난 이번 대회는 각국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과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